신학 작 '일렁이다'와 김호득 작 '폭포 I'(오른쪽).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미리 보는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9월 1일~10월31일 목포·진도서…독일 등 15개국 271명 작품

전통회화를 테마로 한 국내 첫 국제미술 행사인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역 특성을 살려 목포에서는 '현대수묵의 재창조'를, 진도에서는 '전통수묵의 재발견'을 선보인다. 목포와 진도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전시관이 운영된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을 넘어, 프랑스·독일·미국·호주 등 세계 15개국 주요 작가 271명의 작품전시를 통해 수묵의 가치를 재조명·재창조하고 수묵의 매력을 널리 알려, 세계인이 공감하는 동시대 미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총감독은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목포권 전시는 박영택 경기대 교수가 기획했으며, 이승미 행촌미술관장은 '종가의 향기'와 국제레지던시를 담당했다. 진도권은 정명돈 예총 자문위원과 박주생 진도현대미술관장이 지휘했다.

'현대 수묵의 재창조' 목포	'전통 수묵의 재발견' 진도
'첨단·거장' 문예회관 전시관	**남도전통미술관**
첨단 매체 활용 각국 작품	산수화의 과거·현재·미래
거장들의 작품 한 자리에	보고 읽고 즐기는 법 소개
'실험·파격'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금봉미술관**
석회 위로 움직이는 먹물	산수의 변화된 풍경
호주 이본의 '세월호' 눈길	**옥산미술관**
	전통산수서 실경산수로의 변화

수묵수다방·수묵 VR체험…전통시장·학교 등서 행사 다채

◇**현대수묵의 재창조**= 목포의 명물 갓바위 인근에 자리한 목포문화예술회관이 주 전시관이다. 이 곳에서는 '수묵의 경계'를 주제로 수묵의 변화와 발전, 재창조를 엿볼 수 있다. 필묵을 중심으로 한 전통수묵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주요 수묵화가의 작품과 첨단매체를 활용한 현대적 수묵 작품이 전시, '수묵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됐는가'를 보여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이남 작가의 '수묵의 빛'을 만난다. 전통의 수묵과 디지털의 만남을 통해 묵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고자 했다. 마주하는 작품은 박종갑 경희대 교수의 '바람'이다. 모필이 아니라 손과 빗자루를, 한지가 아니라 나무를 사용하는 재료의 파격을 선보인다. 신학 작가의 '일렁이다'도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거닐 수 있다. 신 작가의 아버지는 남농 선생의 첫번째 제자 도촌 신영복 선생으로 아버지가 품었던 전통수묵을, 아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현대수묵 거장들의 평면 수묵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호득 작가의 '폭포 Ⅰ,Ⅱ'와 강경구 경원대 교수의 '우러라 우러라'다. 김 작가는 폭포의 이미지를 극도로 단순하게 형상화했고, 강 교수는 한강변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수묵의 숲'을 주제로 실험적 수묵 작품 및 대형 수묵작품 설치 등 특화된 공간 구성으로 관객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곳은 젊고 실험적이며 파격적이다.

광주 작가인 정광희 씨는 먹 위에 던져진 백자가 깨지면서 생긴 파편으로 먹을 번지게 하는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이고, 이승하 작가는 석회 바탕에 먹물을 저절로 움직이게 한 작품을 출품했다.

프랑스의 소피, 독일의 해리 메이어는 서양작가이지만 수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호주의 이본 보그 작가는 세월호를 그렸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을 수묵이란 재료로 표현한 서양작가의 첫 세월호 작품이다.

◇**전통수묵의 재발견**= 진도는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의 거점이다. 전통에는 인물화·문인화·산수화 등 다양하지만 대표 장르를 산수로 설정하고, 산수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 산수와 풍경의 다름을 살펴볼 수 있다.

남도전통미술관에서는 이러한 산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주제(요산요수 樂山樂水)로, 전통산수화의 새로운 해석과 표현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산수화를 보는 법, 읽는 법, 즐기는 법을 깨치는 공간이다.

과거 특징이었던 간결·함축적 표현은 근현대로 내려오면서 합리적 공간 구성 및 표현을 추구하게 된다. 이같은 산수의 변화된 풍경은 금봉미술관에서 보여주며 옥산미술관에서는 '산수(山水)-현실에서 찾은 이상향'이라는 주제로 전통산수에서 실경산수로의 변화 과정을 엿본다. 중국 작가 7명이 참여했다.

◇**참여하고 체험하는 수묵비엔날레**= 전시관을 넘어 광장과 전통시장, 학교 등 목포·진도 전체를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관람객을 찾아 광장으로 나간 프로그램이 '깃발미술제'며 '수묵아트월'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작가 300명이 초대됐다. 국내외 작가들이 유휴시설을 활용해 체류하면서 창작활동을 하는 레지던시 '수묵수다방'도 준비돼 있다.

미래세대인 초·중학생 400여명도 이번 비엔날레에 초대작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또 VR(가상현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수묵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머그컵·두방지·부채 등을 직접 제작해보는 '나도 수묵화가', 수묵화를 테마로 한 퍼포먼스 공연, 수묵 캘리그라피 등도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以畵會友〈이화회우〉

한희원 등 동기 5명 국윤미술관 전시…9월 5일~10월14일

서병옥, 정상섭, 정용규, 채종기, 한희원.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다섯 명의 서양화가는 학창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동년배 친구들이다. 저마다 추구하는 예술 세계는 다르지만, 자신의 개성이 담긴 그림을 꾸준히 그리며 각자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왔다.

광주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이들 다섯명의 작가를 초청, 9월5일~10월14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2018광주비엔날레 행사를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이화회우(以畵會友)'. 전시명은 '군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라는 뜻의 '이문회우(以文會友)'에서 따왔다.

한희원 작 '생의 일기'

한희원 작가는 화가 고흐의 얼굴을 꽃병으로 삼은 '생의 일기'를 선보이며 정상섭 작가는 트레이드 마크인 화사한 꽃무더기를 만날 수 있는 '꽃바람 부는 언덕' 등을 전시한다. 정용규 작가는 무등산 풍경과 모성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 조화롭게 자리한 '빛과 희망-무등산'을 선보이며 채종기 작가는 강렬한 색감과 자유분방함이 돋보이는 추상화 '상황' 연작을 선보인다. 소박하고 토속적인 풍경을 마음에 담는 서병옥 작가는 기와 문양과 꽃나무 가지가 어우러진 '꽃담' 연작을 전시한다.

정용규 작 '빛과 희망-무등산'

문의 062-232-733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명인이 만든 주전부리

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 31일~9월 1일 비움박물관

광주의 주전부리와 대표 먹거리는 무얼까?

(사)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회장 박종찬)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광주비움박물관에서 '남도명인이 만든 디저트음식개발 및 전시'를 진행한다.

박승희 작 '양갱'

이번 전시에서는 디저트 음식 전문강사와 수강생들이 만든 호박양갱, 자색고구마, 도라지 양갱, 전통양갱 등 6종의 양갱과 추억의 과자 '오란다'를 선보인다. 또 조은발효식품연구회 김고은 회장과 정현숙 미소랑 대표가 개발한 건강 삼색찐빵도 특별 전시되며 시식 시간도 마련된다.

전시에 앞서 공모사업 책임자인 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 송기희 이사는 디저트음식전문가와 함께 총 7회에 걸쳐 삼색양갱, 미세먼지 방지 도라지 양갱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한 양갱과 추억의 과자 오란다를 만들어보는 강좌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남도의례음식 이수자인 고선자·임영란씨, 자연음식 전문가 박송희 , 남태평농가의 발효식품 전문가 정선자 명인이 참여했다

사)남도음식문화콘텐츠진흥회는이번 전시를 계기로 광주를 대표하는 주전부리상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의 010-7550-245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